

과총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공청회'

'특성별 맞춤 지원' 으로 학회 경쟁력 강화 유도

글 | 이희욱 _ 동아사이언스 기자 heeuk@donga.com

학문은 연구자에 의해 갈고 다듬어진다. '나 홀로 연구자'는 최고의 학문적 경지에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와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를 하고 정보를 나눈다. 이렇게 결성된 학술모임이 '학회'다.

학술활동은 기초학문의 발전은 물론, 원천기술 확보의 기반인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기획과 사후 연구결과 활용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학술활동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국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학회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산·학·연이 손잡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지난 5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회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대 과학기술인 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과총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들여 다듬고 검토한 끝에 내놓은 산물이다. 이를 위해 과총은 지난해 3~4월, 주요 학회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학회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백성기 포항공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지정, 학회 학술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 정책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2월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동시에 장호완 과총 부회장(서울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회 육성지원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끝에 이번 공청회 자리에 내놓은 것이다.

공청회 자리에는 과총 소속 학회 관련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도중에 자리를 뜨는 참석자도 거의 없었다. 산고 끝에 탄생한 기본계획안에 쏠린 학회들의 비상한 관심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유사학회 연합해 경쟁력 강화

개회사에서 채영복 과총 회장은 "과총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학회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는가 하는 일이지만, 재원 조달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채영복 회장은 "1억 원 이하의 운영비로 1년을 버티는 학회가 전체의 36%이고 사무실조차 없는 학회도 41%나 된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학회들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뒤이어 경과보고에 나선 장호완 과총 부회장도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부탁했다. 장호완 부회장은 "청소년도 어른이 되기 위해 성장통을 앓는데,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조직 과총이 어찌 고통 없이 성장하겠는가"라며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로 날날이 밝혀지는 현실에서 학회도 숨김없이 스스로 체질을 강화해야 살아남는다는 각오 아래 이번 기본계획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각 학회들의 상황을 솔직히 말해 주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당부

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기본계획안의 내용이었다. 발표를 맡은 문상흡 서울대 교수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과총 소속 302개 학회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거쳐 만들어졌다. 먼저 기초 조사에 따른 학회들의 실태를 보자. 학회 규모를 보면, 조사대상 학회 가운데 회원규모 500명 미만인 곳이 64곳(21%), 500~1천 명인 곳은 113곳(37%)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예산 규모에서는 연간 1억 원 미만, 1억~3억 원, 3억 원 이상인 곳이 각각 36%, 30%, 34%로 비슷했다. 하지만 예산 조달 구조를 보면 과총 지원액이 36억 원으로 전체의 3.6%, 학술진흥재단 지원액이 18억 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의 81%는 기부나 특별 행사를 통한 찬조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흡 교수는 “학회뿐 아니라 과총이나 정부가 예산

을 많이 확보해, 각 학회들이 운영비를 벌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고도 정상적인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 운영방식이나 학술활동 면에서도 영세성이 드러났다. 전체 조사대상 학회 가운데 사무실이 아예 없는 학회가 10곳 가운데 4곳(41%)이나 됐다. 사무실이 있는 곳도 10명 미만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학회 발간 학술지 또한 논문 게재수가 50편 미만인 곳이 전체의 46%에 이르는 반면, 10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곳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쳤다.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소규모 영세 학회들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이번에 과총이 내놓은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은 이런 학회



채영복 과총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상홍 서울대교수가 제1주제인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 영세성을 타파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책이다. 전체적인 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우선 각 학회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이학 중심 학술지는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영문지 발간 및 SCI 등재를 유도하고 ▲농수산 중심 학술지는 국내 학술·기술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국문지 발간을 유도하며 ▲공학·의학 중심 학술지는 학문 특성에 따라 SCI 등재와 국·영문 학술지 발간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 학회의 요건도 거품을 빼고 현실화했다. 이는 1단계(2006~2008년)와 2단계(2009~2011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학회 규모를 보면, 지금까지는 단순히 '회원수 500명 이상'이라고 돼 있던 것을 '회비 납부회원 200명 이상'(1단계) 및 '회비 납부회원 300명 이상'(2단계) 등으로 현실화했다. 유명 회원을 끌어내고 실제 활동 회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학술지 발간수 또한 '연간 300부 이상'으로 양적으로 평가하던 것을 '연간 40편 이상'(1단계), '연간 50편 이상'(2단계) 등으로 질적인 평가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한 마디로, 정량적 기준에서 정성적 기준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새로이 공개된 학회 평가지표다. 이는 학회 규모와 학술지 발간, 학술회의 등 기타 활동에 각각 50점, 100점, 100점을 부여해 총점 350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이 평가지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회 육성지원·평가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평가지표



지명 토론자(오른쪽부터) - 김종성(대한마취과학회 차기이사장), 김재욱(한국물리학회 회장), 성필모(대한전자공학회장), 이철호(고려대 교수), 한 욱(육군사관학교 교수)

보다 좀 더 정량화되고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과총은 지난해 38억4천만 원이던 학회 지원 예산을 올해 47억4천만 원으로 9억여 원 늘렸다. 내년에는 이를 80억 원으로 대폭 늘린 뒤 해마다 20억~30억 원씩 추가 확보해, 2010년께면 학회 지원 예산규모를 15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천200만 원에 불과하던 학회당 평균 지원금도 2010년에는 5천만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과총측은 밝혔다.

공정하고 믿을 만한 지표 확보가 핵심

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선 이런 과총의 '처방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지정토론에 나선 김종성 대한마취과학회 차기이사장은 소규모 학회 통합의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성 이사장은 "의학회 산하 140여 개의 학회 가운데는 100명이 채 안 되는 곳도 있지만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학회다"라며 "학회 규모가 작다고 똑같이 취급하기엔 무리



김종성 대한마취과학회 차기이사장

"학문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어느 한 분야로 구분하기 힘든 학회가 생겨나고 있다. 학회 소속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회 자체 교육에 대한 지원책이 빠진 점도 아쉽다."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문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어느 한 소속으로 분류하기 힘든 학회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어떻게 분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뒤이어 나선 김채옥 한국물리학회장은 기본계획안의 각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학기술 동향분석 포털사이트를 설치·운영할 경우 DB에 대한 저작권 문제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시상식을 학회 규모나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괄



김채옥 한국물리학회장

“평가 지표를 보완했다 하나, 아직은 양적 평가에 치중한 느낌이다. 학회간 통합 문제도 각 학회 특성이 다른 까닭에 말처럼 쉽지 않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야 한다.”

적으로 논문 1편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문제 ▲SCI 및 SCI-E 학술지에만 치중하는 평가방식의 문제 ▲학회간 통합의 현실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저마다 특성이 다른 학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달리, 학회를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로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평모 대한전자공학회장은 “학회는 필요에 의해 비슷한 전공자끼리 자유롭게 만



성평모 대한전자공학회장

“학회도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레 살아남거나 흡수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회 활성화를 위해선 재정 확대가 핵심이다. 지금의 지원 규모는 경쟁력 없는 학회의 목숨만 연장하는 측면이 있다.”

든 것”이라며 “학회도 밀림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레 살아남거나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학회를 지원하려면 현재 예산의 10배는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소규모 지원으로는 오히려 도태될 학회의 목숨을 연장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철호 고려대 교수는 ‘평가체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 분야별로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공정성



이철호 고려대학교 교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별로 평가 체계를 달리 해야 한다. 과총과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이 손잡고 차별화된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SCI급 논문에만 매달리는 평가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

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과총이 이 기회에 공정하고 믿을 만한 학술평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옥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이번 기본계획안의 의미를 비교적 높이 평가했다. 한 교수는 “종래 무늬만 비슷하면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가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기본계획안 수립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이제는 소규모 유사 학회들이 과총에 가입했



한 옥 육군사관학교 교수

“소규모 유사 학회들이 과총 회원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임승차하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평가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건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다.”

다는 이유만으로 무임승차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현실의 문제점이나 현상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폐합 실효성 있나, 논란도

하지만 여전히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다. ‘소규모 영세학회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과총의 구상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해 장호완 과총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과총의 지원이 오



문 교수가 종합토론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종합토론에서 대한바이러스학회 학술간사인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가 질문을 하고 있다.

히려 영세 학회를 양성하고 학회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돼 왔다”며 “밭에서도 잡초를 제거해야 작물이 잘 자라듯, 이번 시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계획안을 설명한 문상흡 교수도 “학회 규모에 관계 없이 똑같이 지원받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다”며 “슬기롭게 이합집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시간에 학회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불가피한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학회들로선 무조건적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큰 듯하다. 토론을 방청한 안홍배 한국천문학회(부산대 교수)은 “규모가 작아도 역사가 오래되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는데, 이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지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끈 곳도 있다. ‘대한바이러스학회 학술간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방청객은 “국내 5개 학회가 모여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한국미생물학회연합을 만들었지만, 지금도 잘 안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질적인 학회들이 모여 연합을 만드는 게 우리 나라 정서상 어려운 게 사실인데다,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게 많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광인 과총 진흥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란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 학회가 많았다”며 “소규모 학회라고 무조건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학회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합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정토론을 진행한 신명철 성균관대 부총장도 “이번 안이 군소 학회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학회 육성·지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논문평가 기준 마련 과제로 남아

평가지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컨대 국문 학술지와 영문학술지 발간을 각각 50점씩 배점한 대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다. 백상기 한국동물학회(충남대 교수)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학회들은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거의 안 낸다”며 “이 경우 국문학술지 점수가 없어, 평가기준에 따르면 점수가 바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김재욱 한국물리학회장 또한 “영문학술지만 발간하는 학회는 별도로 배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이에 대해 채영복 과총 회장은 “외국 기준인 SCI 등재 논문수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과총이 선보인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은 무분별하게 늘어난 가는 학회를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지원 방안을 효율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과 영세성으로 학술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회들의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㉔